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인문고전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안

The Application of Liberal Arts Classic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문 유 혜

2014년 8월





인문고전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안

The Application of Liberal Arts Classic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지도교수 장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문 유 혜

2014년 5월





문 유 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5
II. 이론적 배경	7
1. 어린이 철학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관계	7
2. 인문고전의 교육적 의미	15
III. 인문고전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법	22
1. ‘필사’(T: Transcription)를 통한 인문고전 이해하기	24
2. ‘명상’(M: Meditation)을 통한 ‘나’ 찾기	30
3. ‘토의·토론’(D: Discussion)을 통한 생각나누기	34
IV. ‘TMD’를 통한 초등도덕교육의 적용	40
1. 초등학교 교실에서 ‘TMD방법’ 적용	40
2. ‘TMD방법’의 교수 학습 과정안	49
V. 연구 결과 및 해석	55
1. 연구의 결과 및 기대효과	55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57

참고 문헌	59
ABSTRACT	62

표 목 차

〈표 1〉 학급교육과정에 적용	43
〈표 2〉 'TMD방법' 적용 사전 학습지	44
〈표 3〉 'TMD방법' 적용 사후 학습지	56

그림 목 차

[그림 1] 인문고전 필사 공책 표지	46
[그림 2] 인문고전 필사 내용(1)	47
[그림 3] 인문고전 필사 내용(2)	48

국 문 초 록

인문고전을 활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안

문 유 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
지도교수 장 승 희

본 연구는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인문고전을 활용한 어린이철학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 철학과 도덕교육 중에 어느 것을 우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린이철학을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철학교육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지만 이는 어린이 발달단계론에 따른 의문일 뿐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철학을 가르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어린이철학과 관련해서는 IAPC의 프로그램이 대체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린이 철학에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IAPC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문고전을 활용한 어린이철학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문고전은 동화와 달리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문고전은 어린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TMD방법'을 적용하였다. 'TMD방법'은 필사, 명상, 토의·토론의 단계를 의미한다. '필사'는 인문고전을 베껴 쓰는 방법으

로 인문고전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명상'은 인문고전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 의미를 음미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토의·토론'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단계이다.

초등학교에서는 'TMD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4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명의 학생들로부터 인문고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평소 자신의 생각보다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TMD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초등학교 현장에서 인문고전을 활용한 도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실험대상이 협소하여 보편적인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문고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보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주요어 : 어린이철학, 인문고전, 'TMD방법', 필사, 명상, 토의·토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학생들의 많은 학습 시간이 세계를 놀라게 한다.¹⁾ 또 그에 맞는 학업 성취 수준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학습 희열도는 매우 낮으며 또한 투자한 공부 시간에 비례한 학업성취도도 최상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흥미와 자신감은 세계 최하위이고, 나아가 학습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거나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²⁾ 공부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가정, 학교, 사회 등 교육 주체들이 공부를 강조하면서도 공부의 목적을 제대로 일깨워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현재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하는 공부 또는 학교·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진정한 철학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철학 교육’의 부재(不在) 때문은 아닐까?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일깨워 주지 못한 교육, 궁극적으로 보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즉 철학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³⁾ 공부를 왜 해

- 1) “79.38시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18세 청소년의 1주일 평균 학습시간이다.(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2008)) 평일에는 14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데 쓴다. 중학생도 주 60시간 이상이다. 정부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니 마니 하는 시대인데, 청소년들의 학습시간은 60시간, 70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는 것이다.” : <http://yosm.asunaro.or.kr> : 『청소년신문 요즘 것들』, 「특집기사-‘넘사벽’인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 2014.06.28, 창간호(검색일: 2014.06.30).
- 2) “우리나라 만 15세(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수학과 읽기 실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최상위(상위5%) 학생들 성적은 수학 4위, 읽기 9위, 과학 15위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자신감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28097>, 『매일경제신문』, 「국제학업성취도, 한국 15세 수학실력 OECD 1위, 흥미·자신감은 최하위권」, 2013.12.04(검색일: 2014.06.30).
- 3) 송선아(2013), 「어린이 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pp.143-145.

야 하는지와 관련된 교육 철학, 또 아동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방향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는 것, 즉 아동철학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을 넘어 행복하게 공부하고, 철학적-소위 말하는 이론적 철학이 아니다-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철학(哲學)’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생각하여 어른들도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들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적용할 것인지 의문을 표할 것이다. 아동들에게 철학을 교육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나아가 아동 중심으로 철학에 접근하는 방법,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적 교육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필자는 ‘인문고전’에 주목하였고, 인문고전 읽기를 통하여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한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카르트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담소하는 것과 같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책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책에는 그 시대의 사상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특히 인문고전이라고 한다면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검증되어 온 책이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는 위인과의 만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고전을 활용해 아동들은 과거의 위인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고, 아동철학에 입문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어린이 철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덕교육의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학교 현장에서 아동철학교육의 한 접근 방식으로 인문 고전 읽기의 방법과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3가지 단계 즉 ‘TMD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TMD’란 용어는 인문고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을 위한 방안에 도입한 세 가지 과정, ‘필사’(Transcription), ‘명상’(Meditation), ‘토의·토론’(Discussion)의 단어에 첫 번째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이 방법들이 기존 연구에서 각각 사용되어진 사례들은 있지만 ‘인문고전’이란 주제에서 이 세 가지 방

법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종합된 경우는 없었다. 도덕교육적 의미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자는 ‘TMD방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는 인문고전의 ‘필사’를 통한 도덕교육 방법이다. 필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은 필사를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동교육에 있어서 매우 효과를 가진 방법이다. 그 효과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힘으로써 어린이들이 인문고전을 이해하고 스스로 철학에 입문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둘째 단계는 인문고전을 읽은 후 ‘명상’을 통해 어린이 철학에 접근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인문고전을 읽고 그에 대해 계속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는 활동이다. 명상에 대한 정의는 “집중·사색·추상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예배나 정신훈련이며, 영어 ‘메디테이션(Meditation)’은 “깊고 심오한 본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응시 또는 묵상” 또는 “종교에서 영적 주제들에 대한 응시이다.”⁴⁾고 내리기도 한다. 이 정의를 통해 보면 어린이들을 명상의 단계를 통해 고도의 정신훈련을 행할 수 있으며 철학에 대한 깊은 고찰이 가능하다. 이에 명상과 인문고전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방법론을 고찰하고 어린이에게 적용해 본 결과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단계는 토의·토론 단계이다. 또래 집단과 인문고전에 대한 토의·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린이 철학에 접근하여 질문과 답을 공유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특히 철학적 사고가 심화되는 단계이므로 이 과정을 교육과정 상에 어떻게 녹여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단계[혹은 과정, 방법]를 통하여 어린이들은 인문고전을 접하고 익숙해지고 가깝게 느끼고 그 결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 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적절한 도움과 독려가 필요하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철학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

4) 장승희(2013), 『도덕교육, 그 성찰과 모색』, 양서원, pp.171-189.

로 인문고전을 통한 철학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위의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고,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나타난 효과와 각 단계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린이 철학 교육을 강조하면서 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 도덕교육에 있다. 즉, 어린이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어린이 철학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며, 어린이 철학교육에 다가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인문고전과 ‘TMD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초등학교 도덕과의 목표에 제시된 것을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기본 생활 예절을 습득하고 기본적인 도덕적 판단력과 실천 능력을 함양하여,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로 명시하고 있다.⁵⁾

이와 관련하여 새 도덕과 교육과정의 방향과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향은 서로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철학교육이 도덕교육을 행함에 있어 줄 수 있는 도움을 다음의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⁶⁾

- (1) 사고의 방법을 제공한다.
- (2) 지속적 ‘자기 수정’으로서의 대화적 탐구 활동을 중시한다.
- (3) 인간 존재의 복합성 및 다양한 차원에 대한 자각이 가능하다.
- (4) 대화적 탐구 방법의 제공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한 가지 방향성으로서 어린이 철학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연구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문 고전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고전 읽기가 어린이 철학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5)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 국어·도덕·사회』,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p.236.

6) 전성희(2009), 「어린이 철학교육에 기초한 초등도덕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30.

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이론 부분과 적용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론 부분에서는 어린이 철학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보고 어린이 철학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을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재검토 해 볼 것이다. 또 인문고전을 활용한 지금까지 교육내용을 살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이를 종합하여 인문고전이 어린이 철학교육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적용 부분에서는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학급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표집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면담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효과와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을 적용한 대상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개별적인 특성이라든지, 학교 풍토, 지역적인 여건이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초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이 직접 희망하여 교육에 응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각 장 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어린이 철학과 인문고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이 논문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인문고전’과 ‘어린이 철학’을 접목하기 전 각각의 요소가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며, 또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초등도덕교육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어떻게 융합되어 교육방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밝히는 장이다.

III장에서는 ‘인문고전’과 ‘어린이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TMD방법’을 통해 제시한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반드시 순차적인 단계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인문고전은 어린이 철학을 위한 좋은 교재이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음을 밝히며, 동시에 어린이 철학이 인문

고전이라는 다소 무겁고 정적인 교재에 얼마나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직접 초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반드시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과연 교학력자가 읽기도 버거운 인문고전을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여러 선생님들에게 대략적인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이 장에서는 초등 교실에서의 적용과 수업에서의 적용부분으로 나누어서 방법을 제시하겠다. 수업이 초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으나, 학교는 수업 시간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으며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학교의 기능 강화로 인해 아침활동에서부터 저녁 방과 후까지 학교의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수업시간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본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은 무궁무진하다. 이에 초등 교실에서의 적용을 따로 연구하여 비단 수업시간을 통한 교육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에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별 수업 적용 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 및 시행착오를 제시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활용한 접근 방법도 소개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앞서 제시했던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동시에 이 연구의 한계와 또 다른 제언을 통해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어린이 철학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관계

가. 어린이 철학의 의미

어린이 철학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의미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철학은 합리적 사유와 원리적 탐구라는 이성의 고유한 능력을 통해 인간이 품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이다.’⁷⁾고 이야기한다. 또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과 호기심에 대한 탐구의 대상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 바로 어린이 철학의 과제가 된다. 어린이 철학 교육은 철학적 대화를 통하여 세계와 인간, 지식의 근원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특징짓는다. 따라서 어린이 철학 교육이란 어린이에게 철학에서 탐구하는 방법인 철학적 사고를 기르도록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에 따르는 철학함의 방법을 익히게 하여 스스로 자신이 문제 삼는 모든 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어린이 철학이다.’고 규정한다. 또, 덧붙여 이 세상과 자신에 대한 탐구와 탐구방법을 익혀서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과 세계, 자신과 타인과의 갈등을 어떻게 철학적인 사고력을 활용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해결하여 만족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⁷⁾

어린이 철학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어린이 철학은 어린이의 존재 탐구,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그리고 기성의 어린이를 위한 철학을 포괄한다.’고 주장하며 어린이 철학에 대한 범주를 셋으로 나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전자의 접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어린이의 존재는 결코 독특한 철학적 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다시 살피기 때문으로 이러한 성찰은 어린이 역시 넓은 의미의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 교육을 반성하게 하는 진지한 물음이 되기도 한다.”라고 주장한다. 덧붙여 “어린이 철학은 어떤 의미에서 인권교육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7) 정인선(2010), 「초등교육과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12~14.

데 이는 어린이 철학이 어린이의 존재 탐구든 아니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이든 어린이의 삶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침묵과 규율만을 강요하거나 사고조차도 도구적 이성의 발달에만 치중하는 기성의 교육은 어린이의 사유 권리를 부정하거나 간과하는 반교육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을⁸⁾ 반영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어린이 철학이라는 것이 피상적으로 볼 때는 어른들이 하는 이른바 ‘철학’과는 의미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듯하지만, 철학의 주체와 대상을 ‘어린이’라는 특정한 주체와 대상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어린이라는 존재 속성으로서 지니는 특수성에 주목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철학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첫째, 어린이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기보다는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철학의 내용과는 다르게 어린이 철학은 특별하게 전인적인 관점에서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 철학은 일반철학과는 달리 학문의 한 종류로써 철학에 접근하기보다는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철학을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써 다루며 어린이들의 전인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된 논의의 내용으로 어린이 철학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둘째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상 어른과는 달리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존재가 과연 철학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철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논의의 내용에 어린이 철학과 초등학교 도덕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어린이 철학이 어떠한 위상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나아가 어린이 철학이 교육에게 던지는 의미, 구체적으로 IAPC의 어린이 철학 연

8) 박찬영(2008), 『어린이 철학, 도덕교육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 한국학술정보(주), <들어가는 말>에서.

구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초등도덕교육에서의 어린이 철학교육

철학과 도덕교육의 관계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어느 것을 상위의 학문으로써 놓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별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교육에서는 도덕을 우위에 놓고 도덕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철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전 교육과정에 도덕과 성격의 내용을 3가지 면에서 개정하였다. 첫째, 한국적인 맥락에 근거한 보편 윤리의 추구이다. 둘째, 도덕과 교육의 핵심내용으로서의 도덕적 덕목과 규범의 제천명이다. 셋째, 윤리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관된 학문의 접근 방법의 활용이다.⁹⁾ 이처럼 도덕교육은 이제 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의 접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초등 도덕교육과 철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한다.

2007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윤리학적 접근을 방법론적인 축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철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내용체계를 '가치관계 확대법'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가치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새 도덕과 교육과정의 취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이처럼 새 도덕과 교육과정에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아이디어가 이미 내포되어 있으며 어린이 철학교육을 도덕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¹⁰⁾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초등도덕교육의 한 방법적 축으로써 철학교육은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학문 영역이다. 이에 본고에서도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하나로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철학을 어떻게 초등도덕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다.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9) 김보정(2010),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덕교육적 요소의 분석과 적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pp.37-45.

10) 정선희(2009), 「어린이 철학교육에 기초한 초등도덕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pp.31-34.

어린이 철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첫 단계는 어린이 철학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철학의 학문성’과 ‘어린이의 사고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학문, 난해하고 복잡한 사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철학은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철학교육’은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철학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철학은 적어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이미 개념적으로 응고된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나 사고의 과정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칸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철학(Philosophie)을 배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철학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철학을 소유하는지, 무엇에 의해서 철학임이 인식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철학함(Philosophieren)만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칸트의 이 말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적 활동의 부산물이나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얻게 해 주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의 사고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에 따라 어린이의 인지 능력이 어른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철학적 사고 능력이 없다는 관점을 말한다.¹¹⁾ 이에 덧붙여 ‘맹자’에 나오는 어느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들며 벼가 빨리 자라게 하느라 어린작의 마디를 조금씩 뽑아 놓는 격으로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일찍이 철학을 맛보일 경우 어린이들이 지나치게 조숙한 나머지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시들어 버린다는 우려의 관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의 무능력에 대한 가정을 반박하는 입장도 많이 있다. 어린이의 사고세계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 보거나 실제로 어린이에게 철학을 가르쳐 보면 어린이가 전적인 무능력으로부터 일정한 단계를 거쳐 유능한 성인으로 발달해간다는 피아제-콜버그류의 아동발달 단계설은 의문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11) 배상식(2010), 「초등도덕교육에서 ‘철학교육’ 교육의 적용」, 『철학연구』 제113집, 대한철학회, pp.137~142.

는 것이다. 어린이로부터 성인에로의 이행은 ‘풍요화’ 라기보다는 오히려 빈곤화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도 한다.

어린이는 지능이 계발되기 이전에 이미 언어를 거의 마스터 하며 성인이 되면서는 오히려 이러한 언어 습득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색깔이나 음감을 손쉽게 통달하고 선명하게 구사하는데 비해 성인이 되면서 그러한 능력이 감퇴하게 되며 결국 그러한 능력은 그 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덧붙여 철학적사고와 관련한 어린이의 사고세계에 대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어린이의 사유는 오히려 어른에 비해 다양하고 다채로우나 사회화과정을 통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기존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으로 틀이 짜여 지게 되고 출세에 필요한 실제적 문제에만 관심을 좁히게 되며 당장에 불필요한 사고들은 포기 해 버린다는 주장도 있다. 부단한 의문과 질문의 제기라는 점에서 어린이는 철학과 유사점을 가지며 어른들은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상실한지 오래인 존재들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같이 철학이 경시되는 사회에서는 어린이들도 암기, 기억, 계산과 같은 비철학적 능력의 계발만을 가용당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어린이 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어린이, 공부 잘하는 어린이로 성장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에 대한 철학교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어린이 철학교육을 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다. 또한, 가능한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방임이다.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철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두 손 놓고 있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철학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른으로서 가지는 아동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을 때이다.

라. IAPC 철학교육 프로그램

앞서 ‘초등도덕교육 속 어린이철학’과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철학 프로그램을 연구한 단체가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어린이를 위한 철학(philosophy for

12) 황경식(2003),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pp.183-186.

children)’을 내세워 철학자와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어린이 철학개발연구소 ‘IAPC’(Institute for Advancement of Philosophy for Children)에서 어린이에 대한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비판하였다.¹³⁾ 이렇게 매투스(Mattes)와 리프만(Lipman)을 중심으로 구성된 IAPC가 1969년에 발족된 이후, 1980년에 전 세계 수천 개의 교실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¹⁴⁾ 1995년에는 어린이 철학을 위한 교사 교육,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육 연구에 종사하는 전 세계 지부 센터가 40개, 그리고 이 무렵 IAPC에서 생산한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부분 혹은 완역된 것이 20개 언어,¹⁵⁾ 지금은 4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 소개 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¹⁶⁾ 또, IAPC는 어린이 철학의 교재는 어린이 소설의 형태로 집필하고 학습모형으로는 탐구공동체를 채택했다.

어린이의 연령수준별로 마련한 교과서들은 그 수준의 어린이를 1인칭 시점으로 하여 그 수준의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과 생각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이러한 소설의 형태를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자칫하면 지루하거나 난해한 과목으로 여겨질 수 있는 철학을 어린이가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에 담아 그들이 자연스럽게 철학을 접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둘째 어린이들이 커서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고전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셋째, 소설이란 양식은 인간관계의 미묘함과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단면을 나타내기에 효과적이다. 넷째, 교육방법으로서의 탐구공동체라는 모형을 소설을 통해 실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삶의 모습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접할 수 있으며 그 책의 독자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므로 어린이들은 이 소설을 읽으며 자신의 생활 경험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의미를 찾는 데에 더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이다.

13) 오창진(2008), 「립맨 어린이 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12~13.

14) Matthew Lipman, Ann M. Sharp, and Frederick S. Oscanyan, *Philosophy in the Classroo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80), p.51.

15) Matthew Lipman, *Natasha: Vygotskian Dialogues*(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1996), pxxii.

16) 리프만(Matthew Lipman), 박진환·김혜숙 옮김(2005), 『고차적 사고력 교육』 서울 : 인간사랑, 책 처음, 독자에게 전하는 리프만의 글 중에서

어린이들은 혼자 있기보다는 누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고 또 항상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소크라테스식의 대화적 탐구법을 익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대화식 토론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발적인 사고활동이 더욱 촉진되며 스스로 의미를 발견하고 내면화 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다. 탐구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태도, 상호 존중의 분위기, 교화의 배제가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선결조건들은 철학 그 자체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철학적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고무시켜 주면 교실은 자연스럽게 탐구 공동체로 전화되어 간다. 이 탐구 공동체 방식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진리관인 오류 가능성론이다.

오류가능론이란 우리가 얻은 지식은 고정되고 확정적인 진리일 수 없으며, 또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식은 역사적, 사회적, 언어적 굴레를 벗지 못한 산물로서 언제나 새로운 자료와 증거들에 의해 자기-수정 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즉, 우리의 지식에는 그 어떤 궁극적 토대도 없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규제 이상으로서의 이성이다. 그러나 이 이성을 통한 추론과정조차도 질문, 대화, 실천이라는 맥락 안에서 언제라도 개정될 여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러한 전제를 늘 지니고서 토의에 임한다면 위에서 말한 선결 조건은 자연스럽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탐구 공동체의 수업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¹⁷⁾

1) 교재의 제공

앞에서 말한 소설 형식의 교재를 접하는 단계이다. 어린이들은 이 소설을 통해 지나간 세대들의 성취업적과 가치를 성찰해 보게 되며 소설은 개인과 문화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결핍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교재를 돌아가며 소리 내어 읽는다. 이 유희활동은 읽기와 듣기를 구성원과 함께 번갈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고 학생 개인이 흥미 있는 부분과 의문 나는 부분을 발견하게 해준다. 또 쓰인 언어를 음성언어화 하면서 개인이나 공동체가 교재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17) 좌경옥(1995), 「철학교육의 도덕교육적 효과 : IAP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제7집,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pp.143~147.

2) 안건의 구성

본문을 읽은 후 학생들이 자신의 궁금증과 연결된 질문을 만들어 발표하는 단계이다. 이 안건들을 교사는 칠판에 받아 제시해 보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다음 단계의 토론 주제를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교사나 학습계획이 학생들에게 학습주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호기심이 고취되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 의미의 발견 등 이미 적극적인 사고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3) 공동체 결속화하기

앞에서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화적 탐구를 진행한다. 이때 구성원이 각자의 의견만 내어놓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개의 견해들을 이해할 뿐 얻어지는 것이 없는 산만한 토의나 담화가 되지 않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화는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에 의해 자기수정적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토의나 담화하고 구별된다. 토의나 담화는 단순히 상호 교환적, 상호작용적인 데 비해 대화는 상호거래적, 전이 작용적이어서 변증법적 진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열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지적으로 긴장한다. 대화에 있어서 영성찬 추론이나 우둔한 문답은 설 자리가 없다.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하고, 자신의 말을 가다듬어 표현하게 된다. 듣기와 말하기 모두 생각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또, 자신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곰곰이 되뇌어서 그것들을 보다 더 잘 말할 수는 없었는가도 숙고한다. 이 같이 대화에 참여한다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안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을 인식하는 것이며, 탐구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리프만(Lipman)은 말한다. 이 대화적 탐구의 성공은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다.

4) 연습문제와 토론주제 이용하기

공동체 나름의 주제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탐구를 확대 심화시키는 단계로서 교사는 이 때 IAPC에서 마련한 교사용 지침서를 활용한다.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물음들을 인용해 와 전문적인 안내 방향을 따라 탐구를 전개해 본다. 학생들은 여기서 또 다른 철학적 대안들을 접하거나 보다 깊이 있는 철학적 개념들을 생각하게 되며, 또 실제적인 판단연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5) 심화반응으로 고무시키기

지금까지의 공동 탐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앞으로 개개인들이 인지적 표현을 할 때 그 이상의 심화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시도으로써 서로 협력해 이루어 놓은 비판적, 창조적 사고의 종합을 깨닫게 한다.

이처럼 리프만의 IAPC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철학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분야에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리프만의 IAPC프로그램을 인문고전과 어떻게 결부시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담고 있다. 물론 IAPC프로그램을 적용한 우리나라의 여러 철학 관련 연구소에서는 IAPC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인문고전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문고전을 활용했을 때 어린이 철학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증명하고 이를 초등교육의 현장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2. 인문고전의 교육적 의미

가.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

인문고전을 통한 기존의 교육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동화와 인문고전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철학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고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동화는 '어린이를 위해 쓰인 글'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맞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린이를 교육하는데 더욱 적절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에 대해 먼저 논한 뒤에야 비로소 인문고전을 활용한 도덕교육의 의의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 철학프로그램 중 하나로 동화를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유아 철학 놀이에서도 동화책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방법적인 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범위가 넓다. 특히 탐구공동체가 강조되고, 그들의 토론 및 탐구의 결과물을 표현하는 방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이 방법의 교재에서는 먼저 교재의 필자가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문제는 궁금 놀이에서 유아들이 찾아야 하는 궁금중 거리와 유사하다. 그것들은 이야기를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궁금중인 매우 단순한 질문들이다. 즉 주인공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옆집에 사는 형의 생각이 옳은지에 관한 것이다. 물론 모든 사고나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본 교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그 대상임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익숙한 사고방법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이후에는 어린이 철학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궁금 놀이로 진행된다. 발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국어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다. 철학교재에서도 처음부터 어린이들로 하여금 발문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먼저 제시된 동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경향들이 많다. 동화에 대한 분석은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어린이들 스스로 발문하고 대답을 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 놀이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이 때 교재 내용의 분석과 철학 수업을 위한 궁금 놀이는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령 전자의 경우에는 “박쥐는 언제 길짐승이라고 하고, 또 언제 날짐승이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이나 “박쥐는 날개가 있는데 왜 길짐승이라고 했을까요?”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박쥐가 정말 지혜로운가요?”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토론을 하게 될 것이며, 개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로 논증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사고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그림이나 사진, 혹은 철학동화와 관련된 시사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개념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 있다.

철학동화는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매개가 되며, 잘 기획된 철학동화는 가장 탁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APC의 다양한 철학동화들은 어린이 철학에 있어서 매우 좋은 교육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배경이 외국이고 등장인물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90년대에 접어들어 조금씩 국내 창작 철학동화가 발간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철학 동화들은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느냐, 다양한 주제들을 동시에 다루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깊이 사고할 수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 사고의 폭이나 창의성 개발에 있어서 우월하다. 어떤 동화를 선택해야 할지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⁸⁾

이와 같은 '동화'를 활용한 어린이 철학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교재 내용의 분석과 철학 수업을 위한 궁금 늘이는 차별화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과로서 동화를 읽을 때의 물음과 도덕과로서 동화를 읽을 때의 물음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저자도 의견을 같이 한다. 국어과에서는 단순히 교재 내용 파악을 위한 단순 텍스트 분석을 다루지만 도덕 교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을 위한 궁금증을 가지고 발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유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본 저자가 굳이 '동화'를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이 아닌 '인문고전'을 활용한 어린이 철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앞서 강조했던 철학적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기에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자이기 때문이다. 인문고전이 가지는 풍부한 경험적 색채와 물음 등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논해보기로 한다.

나. 인문고전의 가치에 대한 연구

우선 인문고전에 대한 가치는 저자가 따로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세월을 거쳐 내려오며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증명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 지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서양의 중세시기를 볼 때, “인문주의자들의 지식의 원천은 고전 그 자체”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¹⁹⁾ 르네상스기의 대표적 지성인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 같은 사람은 지식의 목적을 인간성의 심미적

18) 임윤정(2007),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방법론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44호, 한국 동서철학회, pp.54~60.

19) 이항직(2011),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 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6호, p.523.

함양에서 찾고 또 지식 형성의 방법으로서 고전읽기를 강조하였다.²⁰⁾ 중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9세기 『자유론』을 저술하여 근대사상의 바탕을 마련한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업적은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의 고전독서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밀(Mill)가(家)의 독서비법’을 보면 ‘아버지와 자녀가 같은 서재에서 공부하라’, ‘학자로 키우려면 고전과 철학 중심으로 독서를 이끌어라.’고 하여 독서, 특히 고전을 강조하였다.²¹⁾ 우리나라 기업이면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가의 경우도 독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고전을 중시하였다. 삼성을 만든 이병철 회장의 경우는 특히 『논어』를 삶의 지침으로 중요시 하였다고 한다.²²⁾

보통 사람들은 <논어>는 ‘지금 읽기엔 너무 고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병철은 물질만능인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어>를 읽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오직 이익만을 취하는 게 목적인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²³⁾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논어를 읽었을까? 단순한 지식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문고전이

20) 위의 논문, p.523.

21) 최효찬(2012),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바다출판사, pp.217-237. : “고대로부터 서양의 귀족과 상류계층은 고전과 철학 중심의 독서법을 자녀교육에 활용해 왔다. 또한 시카고 대학은 고전 중심의 그레이트 북스 프로그램 덕분에 노벨상을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하다. 밀 또한 『자유론』과 같은 걸작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세 살부터 열네 살 때까지 11년 동안 역사와 철학, 수사학, 논리학 등 고전을 폭 넓게 독서한 덕분이었다.”라고 저자는 쓰고 있다. (p.236)

22) “강준만의 <이건희 시대>에 따르면 그는 신문의 신간광고는 반드시 보고, 필요한 책이 있으면 바로 구매를 했다. 또한 집무실에도 제법 넓은 서가를 설치해 놓았다. 쓸데없는 전집을 두는 일은 없었고,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을 비치하고 온 힘을 다해 탐독했다. 그런 그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바로 <논어>다. 그가 실의에 빠져 있었을 때 <논어>를 비롯한 경서를 거의 미친 듯이 읽으며 삶의 고통을 달랜 적이 있었다. 결국 고통 속에서 그를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며 인생 전반에 걸쳐 그를 도운 것은 다름 아닌 <논어>였던 셈이다.”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28>, 『뉴스천지』 2010.11.02, 「삼성가 여자들의 자기 계발법」 <사람을 읽는 이부진의 독서법>(검색일: 2014.07.05.).

23) 위의 칼럼.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는 한 번쯤 짚어보자.

인문고전의 가치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²⁴⁾

첫째, 고전 읽기는 기초 사유 강화를 위한 절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과 사고력 증진이 교양교육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식과 사고의 원천이 되는 고전을 통해 사고할 수 있는 힘과 지구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고전읽기를 통해 통합적 시각을 구비할 수 있다. 인류가 어떠한 문명을 이룩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한다. 익히 알고 있는 바, 고전 읽기를 통해 선임들에게서 해안을 얻을 수 있다. 고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편적 지혜가 담겨 있고, 시대를 꿰뚫는 역사의식과 인생을 음양을 통찰하는 지성의 힘이 고전에서 나온다는데 있다. 종합적 판단과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체험의 기초 위에 형성된 독서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물질적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지식이 전문화되고 파편화되어 가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인생의 지혜를 얻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서가 메달라가고 삭막해져 가는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고전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고전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넷째, 다원화되고 글로벌화 되는 이 시점에서 타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책만큼 좋은 수단은 없을 것이다. 서강대에서 필독서를 선장하는 첫 번째 이유로 “세계화 시대에 세계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동서고급의 고전을 두루 망라한다.”라고 밝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에 비해 소수의 목소리이긴 하지만 고전읽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포착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고전 선정의 정치성은 여전히 논란중이고 고전 강독과 토론 과정에 비한 교육효과 측정에 어려움을 둘러싼 교육공학적 논쟁은 고전교육의 중요성을 무조건 외쳐오기만 한 인문학자들에게는 낯선 풍경”이고, “또한 고전 읽기가 대학가에서 부흥하는 현상이 한국 대학교육의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²⁵⁾ 이러

24) 정인모(2007),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독어교육』 제3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pp.331~333.

25) 이황직(2011), 위의 논문, p.518.

한 비판은 대학교에서 고전읽기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본 연구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떤 방향에서 인문고전을 도덕 교과에 포함시켜 연구할지의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문고전은 사유강화를 위해, 인류문명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기르기 위해, 인생의 가치를 알기 위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필수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문고전을 어렸을 때부터 권장하고 이에 대한 철학적 교육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만큼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다.

다. 인문고전 독서의 단계

앞서 인문고전과 동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문고전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으면 지금까지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를 바탕으로 인문고전을 초등도덕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인문고전에 대한 확고한 논조를 가지고 저서활동을 하며 강연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이지성 작가의 책 『리딩으로 리드하라』에서는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문고전 독서는 (1) 저자만 있는 단계, (2) '나'가 나타나는 단계, (3) '너'가 나타나는 단계, (4)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다. 처음에 나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그저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집요할 정도로 '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열망이 1차원적 독서밖에 할 줄 몰랐던 나를 2차원적 독서로 이끌었다. 나는 인문고전의 내용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몇 년이 지나자 '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나는 멘티들에게 인문고전에 기반 한 멘토링을 해줄 수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나타나는 단계에 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내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주제를 놓고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26) 이처럼 인문고전의 읽기 단계를 넷으로 구분하고 '저자만 있는 단계'에서부터 '우

26) 이지성(2010), 『리딩으로 리드하라』, (주)문학동네, pp.202-204.

리가 나타나는 단계'까지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줄여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단계는 인문고전 필사를 통한 '나'찾기 단계이며, 두 번째는 명상을 통한 '너' 찾기 단계, 세 번째는 토의토론을 통한 '우리' 찾기 단계이다. 이 단계는 비단순차적인 단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나'를 찾은 후에 '너'를 찾고, 중국에 가서 '우리'를 찾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사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아닌 상대에 대한 공감의 찾아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명상단계를 통해서 반드시 '너'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인문 고전 읽기를 도덕교육에 적용하고자 할 때 이러한 단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소개하게 될 세 단계를 거쳐 인문고전에 접근하게 될 때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Ⅲ. 인문고전을 통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방법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교육 모델은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의 최초의 교과서, 『해리의 발견』(Harry Stottlemeier's Discovery)²⁷⁾은 이와 같이 여러 아이들이 공동으로 탐구하면서 사고의 논리성에 대한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곧 탐구와 공동체의 의의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었다. 이후 연습 문제를 포함한 교사용 지도서도 만들었는데, 하나의 교과로서 철학교육을 확보하려 했던 것은 철학 교육이 타 교과 학습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도구적인 의의를 넘어서서 철학교과 그 자체가 지닌 의의를 의식한데서 나온 것이다. 철학을 하나의 교과로서 요청하고 이를 위해 형식적 교육과정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 이후 가지게 된 세계적 영향력의 소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²⁸⁾

또,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을 해 온 매튜스에 따르면 철학 공부는 실용적인 쓰임뿐만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고 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가 철학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상에서 혹은 교실에서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거나 장려하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PWC]’은 철학교육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PFC]과 어떻게 구별되는가?”하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리프만(은 어린이를 위한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이 PFC의 그것만큼 철학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어린이를 위한 철학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특히 어린이 소설을 통하지 않고 철학적 발상에 관한 토론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의 작은 파생물로 성장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어린이를 어린 철학자로서 개발시키는 데 목적이 있

27) Matthew Lipman, Harry Stottlemeier's Discovery, LAPC, 1982. 이 책은 『해리의 발견』(황경식 옮김, 열림원, 1996), 『노마의 발견』(한국철학교육아카데미 옮김, 1999)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번역된 바 있다.

28) 박찬영(2008), 『어린이 철학, 도덕교육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 한국철학정보부(주), pp.19-29.

다. 그러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은 어린이로 하여금 교육과정의 모든 과목을 더 잘 학습하도록 철학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²⁹⁾ 근본적으로 PWC는 어린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철학할 수 있도록 이끄는 평균 이상의 철학교사를 요구한다는 점이 난제다. 어린이를 위한 철학은 잘 갖추어진 철학교과서와 교육과정, 그리고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방법론을 갖추고 있어서 철학교사의 의존도가 PWC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그들에게 역시 좋은 철학교사의 확보는 좋은 철학교육의 가장 큰 관건임을 염두에 두면 더더욱 그렇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은 철학교사의 탁월함을 어느 프로그램 보다 높게 요구한다는 데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 갖고 있는 대중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철학교육의 이상이 철학적 논의의 전제를 근원적으로 의식하고 소크라테스적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의 접근을 접을 순 없다.³⁰⁾

이상에서 어린이 철학에서 밝히 의견을 토대로 보자면 어린이를 위한 철학(PFC)에서는 오랜 시간 다듬어진 교육과정과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어 대중성이 담보되어 있으나, 철학적 논의의 전제를 근원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철학(PWC) 역시 버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본 저자는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다. 인문고전 자체는 교재로써 오랜 시간 훌륭한 가치가 있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문고전을 활용하면 어린이와 함께 인문고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를 위한 철학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기존에 어린이를 위한 철학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좋은 철학교사의 부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인문고전은 그 자체로 철학교사가 제시해야 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줄 것이며 여러 가지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에서는 철학적 고견이 없는 교사들도 함께 배우고 함께 철학해 보는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철학교육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은 PWC와 PFC의 단점을 적절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철

29) Saeed NAji, "An Interview with Matthew Lipman", p.24.

30) 박찬영(2008), 앞의 책, pp.29-35.

학교교육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단계 제시를 통해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의 단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필사’(T: Transcription)를 통한 인문고전 모방하기

가. 필사의 교육적 의미

요즘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쓰고 암기하는 교육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지적될 때가 많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필사이다. 옛 선인들은 인문고전을 필사하며 학습했지만 요즘처럼 자판이 등장하고 글보다는 워드작업을 통한 문서작성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필사는 쓸모없는 교육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심지어 일부교사들은 필사를 처벌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필사하도록 하여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이를 끔찍이도 싫어한다. 그렇다면 필사는 정말 이제 처벌의 한 종류로만 우리 학습의 장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필사’라는 교육법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이다. 먼저 필사라는 의미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필사는 ‘베껴 쓰기’를 뜻한다. 자신이 쓰는 글에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찾아 그대로 써 보는 것이다. 사실 학교 교육에서 베껴 쓰기가 진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론 중심의 수업, ‘도막 난 글’ 분석 등이 주된 수업의 내용이다 보니 한 편의 글을 온전히 쓸 시간을 얻기도 힘든 상황에서 긴 시간과 호흡을 요하는 베껴 쓰기를 지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껴 쓰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1)

글쓰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사’는 소설 창작의 기초인 문장 쓰기 훈련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소설 창작 능력 향상을 위해 깊고 넓은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문장 훈련인 필사(筆寫)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32)고 한다. 즉 필사라는 것은 단순히 글의 한 부분을 옮겨 적는 방법이 아니다. 글과 호흡을 같이 하며 글의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 옮겨야 하는 작업

31) 김정금(2010), 「중등학교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69-72.

32) 이한공(2011), 「소설 창작 교육 방법 연구 :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목차 참고.

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쓴 글을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한다. 다음 기사는 통해 조정래 작가의 필사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필사자에 감사패 전달… “필사는 열독 중의 열독”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설가 조정래(71)가 자신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전 10권)을 직접 손으로 옮겨 쓴 독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태백산맥’ 전권 필사본 기증독자 감사패 전달식이 30일 오전 전남 보성 별교읍 태백산맥문학관에서 기증자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 10권, 원고지 1만6500매로 구성된 ‘태백산맥’은 조정래가 집필하는 데만 꼬박 6년 반이 걸린 대하소설이다. 이 작품을 필사한 전국 각지의 독자는 모두 6명.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동안 노트나 원고지에 옮겨 쓴 필사본은 조정래 문학관에 전시됐다. 이날 수여식에서 조정래는 “필사는 열독 중의 열독”이라면서 “읽기도 어렵지만, 소설을 옮겨 쓰는 것은 백 번 읽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작가로서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고 보람을 느끼는 일이 없다”며 “작가로서 사는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조정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필사한 독자 6명 중 참석자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작품을 발간하는 해냄 출판사 송영석 대표, 표미선 한국화랑협회장, 보성군청 및 태백산맥문학관 관계자, 필사자들의 가족 친지들이 참석했다.³³⁾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필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벗어나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넣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트 루트번스타인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는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난 후에야 그것을 인지할 때가 있다. 또한 지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의 느낌을 알게 될 때도 많다. 피아니스트들은 근육이 음표와 소나타를 기억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손가락에 이 기억들을 저장한다. 그것은 마치 배우들이 몸의 근육 속에 자세와 몸짓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교하고 창조하기 위해 근육의 움직임과 긴장, 촉감 등을 떠올릴 때 비로소 몸의 상상력이 작동한다. 이때가 사고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고, 느끼는 것은 사고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자각하는 순간이다.³⁴⁾

3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0=893740>, 『이투데이』,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필사자에 감사패 전달… “필사는 열독 중의 열독”」 2014.04.01(검색일: 2014.04.22).

34) 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 박종성 옮김(2007),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이와 같은 원리로 '필사'라는 학습법을 생각해 보면 필사라고 하는 것은 몸의 근육 속에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며 그 때의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몸의 상상력이 작동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인문고전을 필사하게 된다면 어린이들은 단순히 책을 통독하는 것에서 벗어나 근육에 그 의미를 새기고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필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볼 때, 필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머리만 사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체를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필사의 좋은 점은 교육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교사에게 검사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어린이들 스스로 내가 읽은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결과물이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태백산맥 필사본과 그 때 사용했던 볼펜의 수를 보여주자 어린이들은 바로 느낄 수 있는 결과물에 놀라워했다. 물론 필사를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이 결코 그 인문고전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로 어린이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로 필사의 장점은 단순한 독서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해 보면 교육적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철학교육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필사 장점이 될 수 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흘려보내지 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새기며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필사는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이자 활동이다. 특히 철학교육에서는 고전과 연계시켜서 방법적 적용을 모색하면 더욱 창의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해보기로 한다.

나. 인문고전 필사 방법

지금시대에는 '필사'에 많은 가치를 주지 않지만 '필사'는 많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필사'를 통해 인문고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초등학교 도덕교육을 위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시되었음을 사전에 밝혀 둔다.

[1] 필사 전에 '통독이나 정독'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필사가 시작되기 전에 책을 먼저 읽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더 큰 이해를 불러들일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사전과제를 제시하여 미리 인문고전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읽는 것과 필사가 가지는 차이는 분명하다. 단순히 읽는 과정은 국어과의 내용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필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읽는 것에서 벗어나 그 문장의 숨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손의 근육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머리에 새기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통독이나 정독'을 하는 것은 '필사' 단계를 보완해 주기 위한 준비 단계는 될 수 있지만 대체하기는 어렵다.

[2] 인문고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단계는 어린이들이 인문고전을 마주하게 하는 첫 단계이다. 그러므로 필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이 단계는 어린이들이 그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왜 필사를 해야 하는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바로 책을 던져 주고 필사를 지시한다면 이는 어린이들에게 또 다른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필사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시간 대로 마쳐야 하는 과제가 아님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필사법은 반드시 피하고 싶은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필사를 마치 형벌처럼 가해 온 우리 교육이 어린이들로 하여금 필사를 싫어하게 만든다. 이 번 연구를 실시하면서 대상 어린이들에게 사전 인터뷰 내용에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저는 필사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SNS에 올라와 있는 좋은 글을 펜으로 옮겨 적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써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만 학교에서 하는 필사는 싫어요. 강제로 쓴다는 느낌이 싫고 왜 그것을 써야 하는지 이유를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위의 글의 내용처럼 필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단순히 인터뷰에 응한 어린이의 특성과 취향이 반영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린이 시절과 어린이들의 존재적 특성에 대해 다시 점검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어린이들은 억압된 상황을 싫어한다. 이는 어른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필사교육은 체벌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량이 주어지고 기한이 정해진다.

그러나 인문고전을 필사함에 있어 얼마만큼 많이 필사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한 줄을 필사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고 그 과정에 만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3] 각주까지 고스란히 필사하도록 한다.

사실상 인문고전에 대해 여러 책을 편찬한 이지성 작가는 인문고전 독서교육은 전통적으로 원전을 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스어로 쓰인 고전은 그리스어를 배워서 읽게 하고 라틴어로 쓰인 교전은 라틴어를 배워서 읽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지성작가도 이런 교육이 일반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³⁵⁾ 인문고전을 원전으로 읽는 만큼 그 작가의 생각과 표현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전으로 읽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능력을 전부 쌓고자 한다면 인문고전에 대한 공부도 과연 가능할까? 이에 대해 여기에서는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고전 교육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번안된 인문고전을 선택하여 볼 때도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책이 다룬 인문고전의 내용을 충분히 흡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해를 위해 달아놓은 각주 역시 필수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번안 작가가 책을 서술할 때 특히나 각주에 원문과 다른 점이나 해석이 잘 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서술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인문고전 원문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35) 이지성(2010), 『리딩으로 리드하라』, 문학동네, p.94.

[4] 인문고전을 필사할 때는 반드시 국어사전을 옆에 두어야 한다.

인문고전에는 학생들이 평소 접해 보지 못한 어휘가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읽거나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낱말이라도 어린이들이 직접 찾아보고 탐구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문고전 필사는 단순히 모방에서 넘어서 나의 학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다른 일과 병행하지 않도록 한다.

필사를 단순히 쉽게 베껴 쓰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자칫 다음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그것은 노래를 틀어놓고 필사에 임하거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을 놀리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필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필사라는 것은 손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머리로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드리는 과정이다. 그런데 노래를 감상하면서 혹은 친구들과 이야기 하면서 실시하는 필사는 단순히 노역과 다름없다.

[6] 필사를 할 때는 반드시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세가 홀어져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뇌가 긴장하지 않고 있으며 무기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잘 못된 자세로 앉는 것은 어린이들이 건강에도 굉장히 해롭다. 머리에 지체를 얻기 위해 몸을 망치가 할 수 없으므로 교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7] 교사가 함께 하는 필사는 어린이들의 독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함께 이야기 하지 않아도 교사가 직접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어린이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동반자라는 동지 의식을 가지게 된다. 교사가 '지시자'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는 과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은 교사의 필사를 보고 자신도 이에 대한 동기유발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문고전 필사를 하게 하는 것은 몸과 머리를 통해 인문고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어린

이들은 인문고전을 통해 그 시대의 최고 성인과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그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수용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인문고전을 비판하고 내 생각을 창조할 시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2. '명상'(M: Meditation)을 통한 '나' 찾기

가. 명상의 교육적 의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치유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명상법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명상을 어떻게 초등도덕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명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기도 한다.

종교와 철학 사상에 명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 능력과 진리의 존재, 즉 전자를 통한 후자의 통찰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인간은 정신적 교양을 통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이다. 명상의 사전적 의미는 “집중·사색·추상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예배나 정신훈련”이며, 영어 ‘메디테이션’은 “깊고 심오한 본질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응시 또는 묵상” 또는 “종교에서 영적 주제들에 대한 응시”이다.³⁶⁾ 명상은 그 목표·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깊은 사색이나 묵상 등의 정신 훈련이며,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종교나 철학과 연관되고 있다. 먼저, 정신훈련이라는 점에서 명상은 단순한 잡념을 넘어 고도의 내적 정신 능력의 계발을 추구하고, 나아가 정신의 심화·확대로 자기를 초월하여 궁극적 본질에 이르고자 한다. 정신적·영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고 궁극적·초월적 본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명상은 종교적 속성과 관련되는 종교는 모두 명상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명상의 특징은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사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다.³⁷⁾

이를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명상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

36)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7m3266a>(검색일: 2012.05.07.)

37) 장승희(2013), 앞의 책, p.177.

신 능력의 계발이며 정신의 심화·확대를 초월하여 궁극적인 본질에 이르러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명상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영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초월명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 GPA(Grade Point Average, 성적 평가점 평균)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 할 때쯤이 되면 IQ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4년간 초월명상을 하면 IQ가 올라가고 IQ가 올라가면 GPA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신경계의 구조적, 화학적 이상인 스트레스로 인해 두뇌 잠재력의 일부분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초월 명상은 생리 기능을 휴식하게 하면서 신경 조직의 구조적, 화학적, 이상을 자연스럽게 치유한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몸의 자체 기능이 작용을 하면서 아팠다가도 회복이 되는 것이다. 초월명상은 이러한 자체 치유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하면서 두뇌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 초월명상이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인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 대학까지 적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³⁸⁾

이 밖에도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다양한 책과 실험사례가 있다. 그렇다면 인문고전을 읽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명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분명 인문고전을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다음에서는 명상을 통해 인문고전에 어떻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 단계를 통해 초등도덕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고 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8) 이영돈(2006), 『마음』, (주)위즈덤하우스, p.348. : 초월명상은 고대 베다 전통에서 유래되어 수천 년간 내려오는 것으로 초월명상자들은 초월명상이 불교 이전에 있었던 가장 오래된 명상이라고 말한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명상이 있지만 초월명상은 쉽게 배울 수 있고, 과학적이며 문화나 철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동서양을 막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명상은 집중, 조작, 기대, 예상하는 식으로 명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식 사고 수준에 묻히게 된다. 그러나 노력이 필요 없는 명상은 집중, 컨트롤, 의도, 조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며 의식의 표면에서 깊어진다. 그것이 초월명상이다. 명상은 마음이고 마음을 넘어서기 때문에 초월적이다.

나. 명상을 통한 교육 방법

명상을 통한 교육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로 명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명상에 대한 방법도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실제로 명상종류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호흡명상이다. 이에 대해 존카밧진은 그의 저서를 통해 ‘호흡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이다.’라고 정의내리며 호흡명상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훈련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다. 그 중 하나는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명상하는 이른바 ‘공식적인 수련’이다. 이때는 행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특별한 자세를 취하고 일정 시간 동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숨이 나오고 들어가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여 이를 관찰한다. 두 번째 방법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호흡을 통해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연습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얽혀 있는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 신체적 이완, 정서적 안정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비공식적 명상수련’이라 부르는데 이 방법의 효과도 공식 명상 못지않다.³⁹⁾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경험이며 사전 준비라던가 지식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매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두 번째 명상법은 화두명상법이다. 이 명상에 대해서 “화두란 불교용어로 깨달음을 파격적인 문답 또는 언행, 큰 의심을 일으키게 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는 부처나 조사의 파격적인 문답 또는 언행, 큰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부처나 조사의 역설적인 말이나 문답을 말한다.”고 이야기 한다. 또 그는 생각거리로서 화두를 제시한 이유를 ‘명상의 기본을 익히고 익숙해지면 다양한 대상에 대한 통찰이 가능하고, 그 대상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가치관→세계관 및 행동의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⁴⁰⁾

39) 장현갑 외 역(2005), 존 카밧친(John Kabat-Zinn),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上·下)(Full Catastrophe Living), 학지사, pp.97-114.

이 두 가지 명상법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교육적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두 가지 명상법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다.

[1] 어린이들에게 명상의 중요성과 마음 비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이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로 앉아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2] 호흡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이 때 명상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호흡에 집중하도록 유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어린이들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고 어떤 논쟁이든 벌일 준지를 하게 되는 것이다.

[3] 화두 명상을 실시한다. 화두를 던지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신이 필사한 내용을 눈으로 다시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긋도록 한다. 그 부분이 바로 화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던진 화두에 집중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명상이 될 것이다. 이 명상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던진 화두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초등학교에서 보다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꼬리 물기'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인이 던진 화두 밑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 생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적어보는 활동으로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명상법을 통해 어린이들은 1단계 필사의 단계에서 이해했던 인문교전에 대한 내용을 비로소 심화시켜 사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확장됨을 느끼고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단계는 첫 번째 필사단계와 세 번째 토론 단계를 이어주는 중추적인 단계이다. 인문교전을 이해하는데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40) 장승희(2014), 「명상의 도덕교육적 효과」, 『도덕교육의 본령과 활성화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4년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357-358,

스스로 판단하는 경지에 오르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더욱 충실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토의·토론'(D:Discussion)을 통한 생각 나누기

가. 토의·토론의 교육적 의미

토의·토론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앞선 연구들에 의해서 충분히 밝혀졌으며 현재 초등 도덕교육에서도 많은 내용들이 토론 방법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만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시절부터 교육 방법에 한 가지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열로 유명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토론교육을 강조하였고, 그들의 힘의 원천이 토론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교육전문가들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적용하는 '질문을 통한 토론과 논쟁'이 유대인 공부방식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유도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이스라엘의 유대인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듯했다.⁴¹⁾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토론학습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법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역시 토론이라고 하는 학습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 단계를 통해 어린이들의 철학적 논의를 활발히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토론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왜 어린이 철학이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겠다. 다음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교육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 내용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철학교육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철학적 탐구에 있어서 어린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흥미가 중요한데, 어린이는 천성적으로 또래 집단을 좋아하고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

41) 연준혁(2013), 『공부하는 인간』, 예담, pp.226-228.

아하기 때문에 이를 촉발시키고 유지시키려면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하는 공동체적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 교육은 그 대상을 개인이 아닌 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흥미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도록 제공 되어질 때 교실은 자연스럽게 탐구 집단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탐구 집단은 개인에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습관을 형성시켜 준다. 물론 올바른 탐구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이성적인 태도, 상호 존중의 분위기, 교화의 배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어린이가 공동체 속에서 타인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개성을 만나며, 그것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 대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대인 감수성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감정이입과 배려적 사고를 일어나는 동인이 되며 건전한 사고를 이끄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 "Peirce"가 지적했듯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Mead의 개념인 '일반화된 자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자율적 사고를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탐구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적 사고란 독립적 사고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기준의 설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믿을 만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기준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평가해 주는 또 다른 기준들, 즉 타인의 관점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준이 정당한 지의 검토는 타인들과의 공동체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근접발달지대이론에 의하면 어린이의 사고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이는 자기보다 유능한 성인이나 또래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 활동을 통해 사고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의 과정을 익혀가며,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되는 교사의 발문과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료들과 교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탐구해 나가는 공동체의 접근은 어린이에게 필수적이다.

다섯째, 언어학적인 측면도 공동체를 탐구의 중요한 견제로 생각하게 한다. 어린이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의 내적인 대화 즉 사로를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타인과의 대화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을수록 사고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며, 대화에 참여하여 타인과의 대화 과정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방법을 알고 내면화한 어린이일수록 합리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그 절차를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로를 증진시키는 탐구는 공동체에서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⁴²⁾

이상의 글을 통해 살펴봤을 때 공동체를 통한 철학교육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다면 더 큰 사고의 확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철학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토론과 어린이 철학교육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어린이 철학교육의 한 방법으로 토론 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철학의 기능이 정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물음을 제기하는데 있다는 것과 어린이 철학 교육의 가능 근거로 제시된 비고츠키(Lev Semenovitch Vygotsky, 1896~1934) 이론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서의 발견학습이나 직접 교수법을 주장하는 대신 '도움 받은 발견' 학습을 강조한 것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적절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비고츠키(Vygotsky)가 강조한 교수자·학습자 및 학습자 또래간의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활용한 탐구 공동체 방법과 일치한다. 특히 근접발달지대내의 잠재적 발달을 선도할 비계설정의 요인들인 공동의 문제해결, 상호주관성, 따뜻함과 반응, 언어의 매개 등은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본질적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플라톤의 초기 작품들에 나타나 있는 소크라테스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 방법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무지의 고백으로 시작되어 소크라테스와 상대방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일련극스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는 무 결론의 결말에 이르게 되며, 대화 상대방이 무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목적

42) 김희용(2002),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연구』 제15집 2호, 초등도덕교육학회, pp.87-104.

을 두고 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 철학교육 방법론으로 적합한 것은 그것이 특수한 결론의 추구보다는 토론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이러한 성격은 대화법의 두 번째 단계인 일렌쿠스에 잘 나타나 있다. Robinson은 일렌쿠스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무지한 사람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의 상태에서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식의 주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인 활동으로서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지식에 이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다. 셋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서 더 나은 사람, 즉 덕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철학의 본성인 질문과 토론활동’에 일렌쿠스의 목적이 첨가되어 있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철학 교육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의 출발점으로서의 무지의 자각을 유도한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목적은 상대방의 잘못된 관념들을 제거하여 무지를 자각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지의 자각은 학습에 대한 이홍우의 표현에 따르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 발견’의 과정이다. 이 관점에서의 학습은 곧 문제를 찾는 일이며, 그런 문제 발견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며, 그런 문제 발견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는 과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통해 합리적 지식이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무지의 자각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학습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무지의 자각을 통해 겪게 될 대화 상대방의 지적 파괴는 상대방의 지적 불안을 자극시켜, 진리추구 욕구를 고취시킬 것이다.

둘째, 동료들의 학습 욕구를 고취시킨다.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방 사이의 일렌쿠스는 주위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학습 욕구를 고취시킨다. 즉 철학교육에서의 교사와 어린이 또는 어린이 상호간의 대화는 탐구공동체 구성원들의 학습 욕구를 고취시킬 것이다.

셋째, 지적 파괴를 통해 지적·도덕적 성장을 자극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대화 상대방은 자신의 신념이 유지될 수 없음을 확신한 대화 상대방은 그럴 듯 하

고, 내적으로 일관된 자신의 신념을 재발견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수정하도록 유도됨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게 되면 새로운 혼란을 야기 시킬 소크라테스의 질문과 만나게 될 것이다. 의도적인 이런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일렌쿠스는 대화 상대방의 지적 겸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상대방의 지적·도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정해진 답을 찾는 '답의 확인'이 아니라 학생에게 친숙한 내용을 토대로 별도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즉 수많은 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열린 질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교사의 '열린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이 이어지고 그 답에 적절한 또 다른 열린 질문,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이 계속되는 교수·학습 상황이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모습이며 철학교육의 본질이다.

그의 토론학습과 철학교육의 관계설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 철학을 위해 토론 학습을 실시해야 하는 명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토론을 통해 인문고전을 통한 철학교육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토론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나. 토의·토론을 통한 교육 방법

토론을 실시하기 전에는 토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고의 단계를 차곡차곡 따라왔던 어린이 들은 이미 이러한 단계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필사단계를 거치며 토론거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으며 명상단계를 거쳐 친구들과 토론할 거리를 직접 정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정해보는 단계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1] 친구들과 모둠을 이루고 둘러 앉아 순서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문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형식에 자유는 없으며 학생 스스로 명상의 단계 때 생각했던 바를 간략하게 발표하면 되겠다. 이 때는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필요하다면 필사공책에 메모하도록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 친구들의 발표한 내용 중에서 함께 토론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주제를 정한다.

물론 명상의 시간 때 제시 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도 좋으나 시간의 제한이 있다면 친구들과 직접 가장 적절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본다.

시간을 따로 정해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는 바를 즉시 말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4] 친구들의 의견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메모해 두고 그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 본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5] 토론할 때의 내용은 메모를 해두거나 따로 녹취를 해두어 나중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이런 자료들이 쌓이고 나중에 다시 살펴본다면 이 또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료들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이 했던 생각과 철학적 물음 등에 대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토론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은 인문고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토론을 반드시 한차례에서 마무리 하려 하지 말고 어린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궁금증을 느끼게 하며 그 궁금증이 해결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IV. 'TMD방법'을 적용한 초등학교 도덕교육 실제

1. 초등학교 교실에 'TMD방법' 적용

앞서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인문고전 필사를 통한 이해하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명상을 통한 '나' 찾기의 단계이다. 끝으로 세 번째 단계는 토론을 통한 의견공유의 시간이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도덕교육의 완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적용 단계가 중요하다. 본 저자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적용하여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의 도덕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이 연구를 실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등을 소개함으로써 초등 도덕교육의 한 방법으로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이 현장에서 많이 파급되고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가. 교사의 역할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의 자질과 교수법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초등도덕교과에서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정립하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초등 도덕교육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던지는 교사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초등도덕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을 정리해 본 후 초등 도덕교육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도덕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이 있다.

교사는 사고활동을 즐거이 용인하며 기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철학적 탐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동체 탐구에서의 절차와 예절에도 숙달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 때문에 리프만(Limpman), 샤프(Sharp), 오스캐넌(Oscanyan)은 탐구 공동체를 이끄는 교사에게는 사고의 명료성, 정확성, 관련성, 깊이, 폭, 논리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논리의 엄격함, 윤리의 민감함, 형이상학의 복잡함을 다룰 줄 아는 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⁴³⁾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만난 교사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러한 능력에 대해 무심해 보인다. 간혹 이러한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와 바쁜 행사 속에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제 현장 속에서 교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본 저자는 세 가지 교사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는 함께 하는 교사이다. 어린이들은 교사와 함께 하는 활동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다가도 교사가 하는 일에 금방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 교사의 표정과 말투를 흉내 내어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바로 함께 하는 교사가 될 것이다. 본 저자의 경우 학생들과 함께 배움의 자세로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교사에게 마찬가지로 인문고전은 생소한 자료가 될 것이다. 먼저 읽고 소화하여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주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읽고 필사하며 명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교사가 되어보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공감하도록 한다. 필사를 함께 하며 시간에 압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부터 분량과 기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필사를 해간다면 어린이들도 교사의 여유로움을 배우게 될 것이다. 좌경옥은 실제로 IAPC의 교사 훈련과정을 통해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IAPC의 교사 훈련과정을 보면 예비 교사들과 이를 지도하는 교수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어린이 철학교재를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탐구 공동체 모형으로 함께 탐구한다. 참여한 예비교사들 전원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모의수업을 실시하는데, 이 때 수업 진행자 이외의 참여자인 다른 예비교사들과 교수들은 똑같은 자격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된다. 수준별 교과서의 내용들을 고루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다루어 봄으로써 탐구 공동체의 원리를 직접 익히는 것이다. 교사 역시 자신이 교육받은 경험대로 교육을 실천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⁴⁴⁾

위의 내용을 통해 살펴 볼 때 철학교수법에서 함께 배움의 자세를 갖추고 임하

43) 김희용(2002), 위의 논문, pp.87-104.

44) 좌경옥(1995), 앞의 논문, pp.143~147.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는 교사의 자세이다. 어른들의 사고와는 다르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어린이들의 유연한 사고에 탄복하게 될 것이다. 나의 주관을 어린이들에게 심으려 하기 보다는 어린이들의 사고를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교사가 되자. 철학 교육에서 '틀렸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더 이상 철학 교육이 아니다. 교사는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수업 앞에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원칙을 가진 교사가 되는 것이다. 원칙이라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을 대하는 교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다. 다양한 어린이들에게 대하는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교사의 권위가 산다. 철학교육에서도 마찬가지 이다. 필사할 때, 명상을 할 때 토론을 할 때 규칙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교사 개인이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직접 정하도록 하여 이끌어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며 교사는 더 이상 군림하는 사람이 아닌 원칙에 따르는 또 다른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유택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우고 제시하고 있다.⁴⁵⁾

첫째, 어린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하라: 어린이와 철학적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보다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어린이들의 엉뚱한 물음과 의견을 허용하라: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왜' 혹은 '무엇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 존재이다. 이러한 물음과 대답들이 제아무리 단순하고 엉뚱한 듯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근저에는 삶과 죽음, 사랑과 행복, 공간과 시간, 참과 거짓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문과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셋째, 어린이들의 유치한 논리를 존중하라: 어떤 문제를 두고 철학적 토론을 진행하건 어린이들의 주장은 각기 나름대로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거는 어른의 시각에서 볼 때 논거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유치하고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일 수 있다.

45) 이유택(2003),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과 원칙에 대하여」, 『철학 연구』 제86집, 대한철학회, pp.269-271.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원칙을 정하고 적용한다면 이 또한 어린이 철학의 시작이 될 것이라 본다.

나. 학급에서의 적용

다음은 본교에서 저자가 직접 인문고전을 통한 어린이 철학교육을 실시하고자 우리학급의 특색으로써 실시한 내용이다.

[표-1] 학급교육과정에 적용

5. 우리 학급 특색 활동 ⁴⁶⁾		
가. 활동명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 기르기		
나. 목표 및 방침		
<p>(1) 아침활동을 통해 독서활동을 실시한다.</p> <p>(2) 인문고전을 권장하며 스스로 필사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p> <p>(3)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여 평균 30권이상의 책을 읽도록 한다.</p> <p>(4) 친구들과 재미있었던 책이나 감명 깊었던 책을 교환하고 감상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p>		
다. 세부 추진 계획 ⁴⁷⁾		
월	지도 내용	비고
3	유득공의 「발해고」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4	최치원의 「새벽에 홀로 깨어」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5	공자의 「논어」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6	추적의 「명심보감」을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7	이규보의 「동명왕의 노래」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9	플라톤의 「소카라테스의 변명」을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10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11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12	이황의 「자성록」을 읽고 필사하기	학습지

라. 기대되는 효과

- (1) 인문고전 읽기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논리력을 형성한다.
- (2) 필사를 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3)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명은 <독서를 통해 생각하는 힘 기르기>이다. 인문고전이라는 명칭을 굳이 넣지 않은 이유는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독서를 강요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인문고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전 학습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학습지를 통한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표1 과 같다.

[표-2] ‘TMD방법’ 적용 사전 학습지48)

질 문	답 변
◆ 인문 고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가 들면서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것. -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 옛날부터 공자, 장자 등 위인들이 지은 책으로서 우리가 읽으면 생각이 넓어지는 것. - 옛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도움

46) 이는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급운영을 위해 계획하는 학급 교육과정 중에서 학급특색활동 부분이다. 초등학교에서는 각 교사와 학급별로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각 학급별 특색활동을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47) 이지성(2010), 앞의 책, pp.312-313, 인문고전 독서교육 단계별 추천 도서에서 참고.

48) ‘TMD방법’ 사전 학습지-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습지로 인문고전에 대한 개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물음.

	을 주는 글. - 철학자들이 철학에 대해 생각하고 말한 것을 써 놓은 책
◆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문고전을 공부하고 싶어서 - 넓게 생각하고 싶어서 -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책에서 읽으면서 인문고전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넓게 생각하는 힘 - 생각이 밝아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 하는 것.
◆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망설임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인문고전이 어려울 것 같았다. -옛날 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단으로서 인문고전이 가치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인문고전이 가지는 어려움 때문에 선뜻 공부하기를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인문고전을 접하게 하고 인문고전이 어려운 책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필요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하는 힘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는 어린이도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 역시 어린이 철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우리들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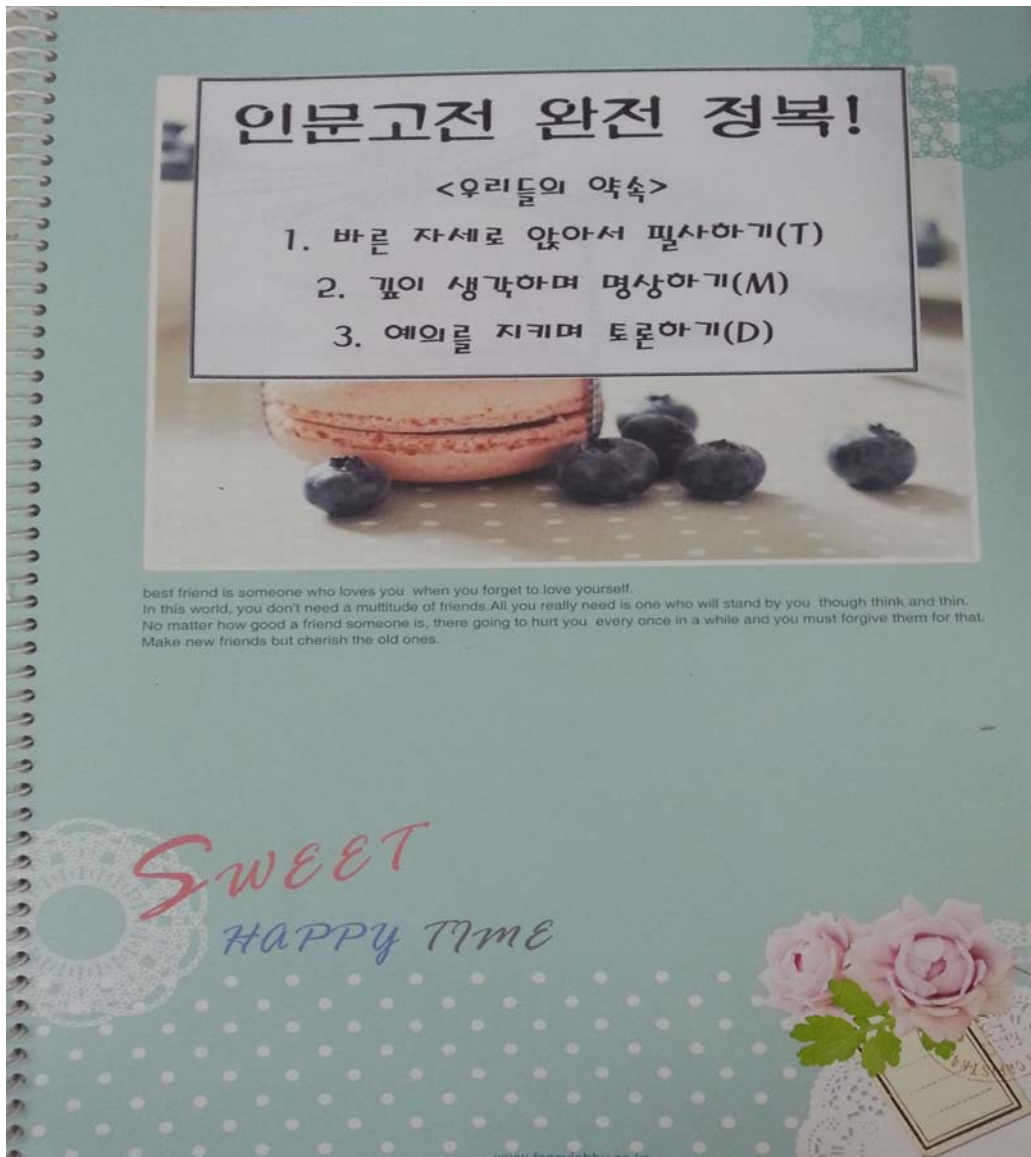
첫째, 필사를 할 때는 바른 자세를 실시한다.

둘째, 명상을 할 때는 집중해서 깊게 한다.

셋째, 토의·토론을 할 때는 친구들과 서로 예의를 갖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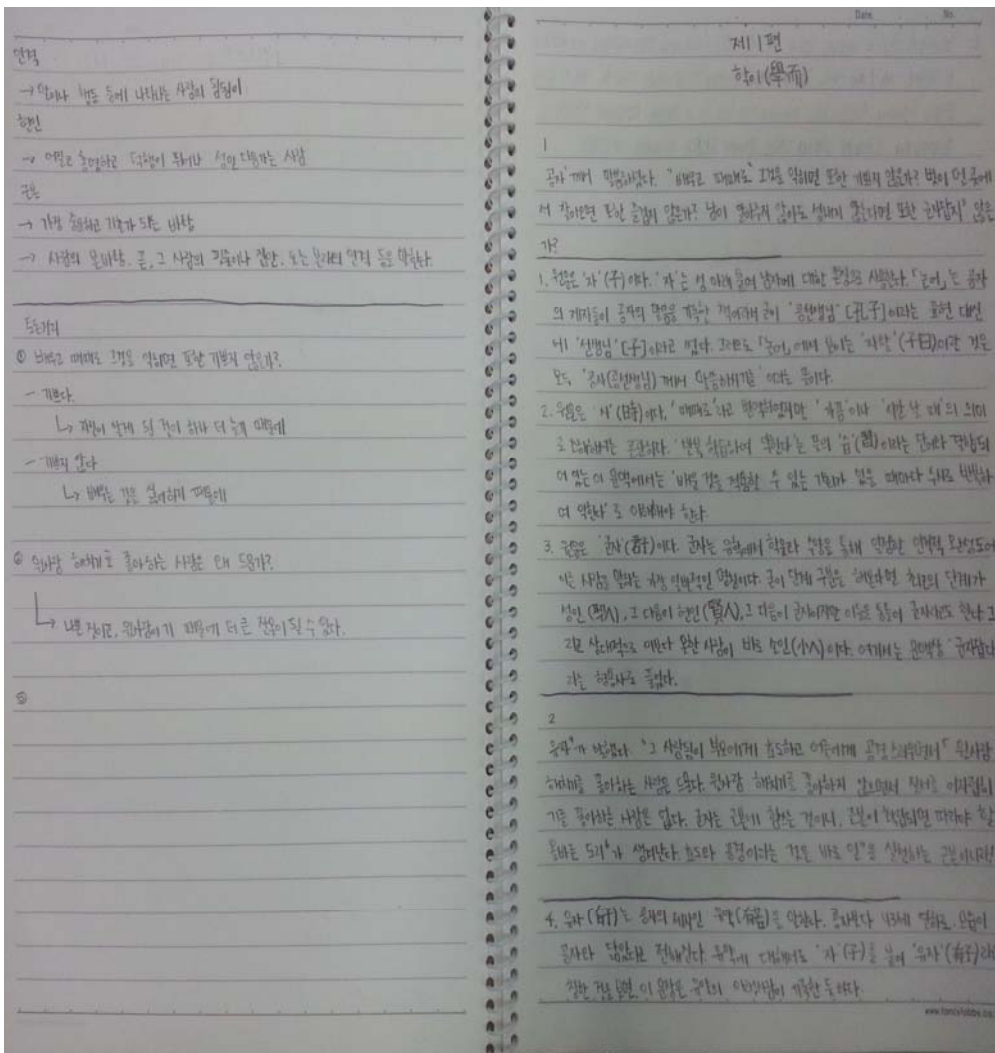
이와 같은 약속은 필사공책 제일 앞장에 부착하여 어린이들이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1>은 학급에서 실시했던 인문고전 필사 공책의 하나이다.

[그림-1] 인문고전 필사 공책 표지



다음으로 필사공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오른쪽에는 인문고전을 필사하도록 하였고, 공책의 왼쪽 부분은 모르는 단어가 생겼을 때 사전에서 찾아 적도록 하였고, 명상의 단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떠올려보고 적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토론을 할 때도 왼쪽 여백을 통해 친구들과의 의견을 보충하여 메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그림2>와 <그림3>은 그와 관련된 사진이다.

[그림-2] 인문고전 필사 내용(1)



[그림-3] 인문고전 필사 내용(2)

권: 1. 가장 중요하고 가장 쉬운 바닷
2. 시인의 태도: 그 사람의 품격이나 값, 또는 본래의 인성
를 알린다

권: 시인: 가장 중요한 태도가 뛰어난 시인 다름은 사람.

<포커리>

• 바이 먼 곳에 있어도 먼 곳 같게 읽는가?
→ 멀어질수록 있다 / 기운과 예절과 태도가 같은 것이 있어 한층
더욱 가까이 느껴질 수 있다.

• 권이 있으면서 태도나 학문을 의지할 것인가
→ 태도나 학문 / 태도나 학문을 의지할 것인가?

• 태도나 학문이란 어떤 태도나 학문의 태도를 읽을 것인가?

• 태도나 학문의 태도를 읽을 것인가?

제 편
학이 (學雨)

1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대하면 그것을 잊으면 또한 기쁘지 않가?
또한 먼 곳에 있어도 또한 가까이 같아 보이게 알아주지 않아도 생각해
않으면 또한 근대답게 알는가?"

1. 원문은 '자(子)이다. 자는 성이라 불러 함에 대한 존칭으로
생략한다. '권'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시
공이 '공전생님' [기(子)]이라는 표현 대신에 '생님 [子] 이라고 썼다
고므로 '권'에서 보인 '자(子) 이란 것은 모두 '권(권명)
에서 말명(말)을' 이라는 뜻이다

2. 원문은 '시(時)야' 때때로 '라고 번역하였지만 '가름'이나 '시간
날 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백(백)에 읽는다'는 뜻 '숨(息)이
단과 함께 읽는 이 뜻'이라는 '백(백)을 읽는다'와 같은 의미로 여
수만 번역하여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3. 원문은 '권(子)이다. 권은 뜻에서 학과 수업을 통해 일정한 단계의
과정도에 이룬 사람 일하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다 권이 만의 권을
해하면 최고의 단계 양인 (백(子), 그 다음이 현인 (賢), 그 다음이
권이지만 이들을 통틀어 권자라고 한다. 그 다음이 현자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
신인 (子)이다. 여백을 문명상 글자라는 뜻으로 읽는다.

2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양에 글자(字)에서 벗어나서
행하지 않으면서 절한 자식(子)으로 일하는 사람은 옳다. 또한 (자)로 권자(子)
앞에서 절한 자식(子)으로 일하는 사람은 옳다. 그는 권에 읽는 것이, 권이
권(子)이면 이러한 글자(子)가 생겨난다. 또한 공경(君)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을 생략한 것이나!"

이상은 학급에서 인문고전을 TMD의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한 방법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인문고전을 통한 초등도덕방법을 수업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2. 'TMD방법'의 교수·학습 과정안

가. 필사를 단계의 수업 적용

교과	도덕	지도 일시	00.00.00	대상	6학년	지도 교사	
단원	10. 참되고 숭고한 사랑			차시	1/3	교과 서	도덕 186~193쪽 생길 168~173쪽
학습 주제	'인'의 의미 알기			수업 모형	지식 이해 중심 수업 모형		
학습 목표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을 기른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덕적 문제의 제시	동기 유발	◎ 도덕 188쪽의 사진 들 속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해보기	-사진을 살펴보고 사진 속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려 보기	5	·나눔과 사 랑을 실천 하는 사람 들의 사진		
	학습 문제 확인 하기	◎ 학습 문제 제시하기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 을 기른다.					
가치 규범의 탐구 및 의미 이해의 심화	관련 규범 및 의미 파악	◎ '인'의 의미 알기 ·<논어>를 읽고 '인'이 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 도덕 189~191쪽을 보고 '인'의 의미 생 각해보기	10			

	가치 규범의 타당성 탐구와 이해의 심화	◎ ‘인’의 중요성 생각 해보기 · ‘인’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인’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고 중요성 생각해 보기	10	
도덕적 정서 및 의지의 강화	‘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 ‘인’을 소중히 여기 는 마음 다지기 · <논어>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구절을 손 으로 직접 써 보기	-문장을 적어보며 생각 하는 시간 갖기 -공자가 주장한 ‘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의미를 곱씹어 보기	10	·논어 책 → 획 일 적 인 결론을 지양하고, 학생의 의 견을 존중 하고 격려 해 준다.
정리 및 실천화	실천 과제 제시	◎ 차시 학습 예고 · 다음 시간에는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 상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 평가 계획

평가 내용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 음이 있는가?	매우잘 함	○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 이 강하다.	관찰법
	잘함	○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는 마음 이 있다.	
	보통	○ ‘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실천하려 는 마음이 약하다.	

나. 필사를 단계 수업자 의도

‘TMD방법’을 어떻게 초등도덕수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고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도덕과에서 사용해 왔던 지식이해수업모형의 하나로 TMD기법 중 필사단계를 활용한 수업이다.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는 성인들이 설파한 다양한 진리를 배우는 수업이 있다. 그 중에서는 공자의 ‘인’을 학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논어>를 필사해봄으로써 인문고전을 통한 초등도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기존에 교과서에서 주어지는 예문에 구속되지 않고 공자의 말씀을 직접 저술한 <논어>를 통해 어린이들은 공자의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명상·토론 단계 수업 적용

교과	국어	지도 일시	00.00.00	대상	6학년	지도 교사	문 유 혜
단원	3. 다양한 주장			차시	5/6	교과서	들말쓰 60~63쪽
학습 주제	‘논어’를 읽고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마무리하기			수업 모형	토의·토론 학습 모형		
학습 목표	‘논어’를 읽고,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유의점(→)	
		교사	학생				
주제 확인 하기	전시 학습 상기 하기	◎전시학습 상기하기 ·지난시간에 필사를 하면서 좋다고 생각했던 구정을 떠올려 봅시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안한 명상 노래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동기 유발 하기	◎ 동기 유발하기 ·호흡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늘 수업할 준비하기					-편안한 노래를 들으며 수업을 받을 준비하기

	학습 문제 확인 하기	<p>◎ 학습 문제 확인하기</p> <p>‘논어’를 읽고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마무리하여 봅시다.</p>		
토의 준비 하기	토의 준비 하기	<p>◆활동1. 토의 준비하기</p> <p>◎ 화두 명상 실시하기 ·‘논어’를 읽고, 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두 명상하기 ·토의 내용을 정해보기</p> <p>◎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정하기 ·우리 모듬이 정한 제2차 토의 주제에 대한 내 의견을 적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정리하여 봅시다.</p> <p>◎ 토의 규칙과 방법 확인하기 ·토의 규칙과 방법을 확인하여 봅시다. 토의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p>	<p>○친구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가장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를 선정하기</p> <p>○ 교과서 61쪽 3번에 정리하기</p> <p>○‘화두명상’기법을 통해 생각 전개하기</p> <p>-손을 들고 말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토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하며 말합니다.</p>	<p>10</p> <p>• 교과서</p> <p>→자신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p> <p>→토의 절차와 주의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전략을 세워보기</p>
토의 하기	토의 하기	<p>◆활동2. 의견 나누기</p> <p>◎ 의견 나누기 ·토의할 때 지켜야 할</p>	<p>○ 포스트잇에 자신의</p>	<p>20</p> <p>• 포스트잇 • 모듬판 • 스티커</p>

		<p>점을 생각하며 제2차 토의를 해 봅시다. 포스트잇을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써보고 모둠 판에 붙여봅시다.</p> <p>◆활동3. 의견 모으고 결정하기</p> <p>◎ 의견 모으기</p> <p>·각 포스트잇에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며 좋은 의견에 스티커를 붙여 봅시다.</p> <p>◎ 모둠 의견 결정하기</p> <p>·스티커의 수를 세어보고 수용된 의견을 정리하여 봅시다.</p>	<p>의견을 써서 모둠 판에 붙이기</p> <p>○ 포스트잇에 스티커를 붙이며 장·단점 이야기하기</p> <p>○ 모둠 의견 결정하기</p>		<p>→단점을 말할 때는 의견을 제시한 친구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말하기</p>
정리하기	토의 내용 정리하기	<p>◎ 토의 내용 정리하기</p> <p>·제2차 토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봅시다.</p>	<p>○ 결정된 의견을 교과서 63쪽 4번에 정리하기</p>	5	

※ 평가 계획

평가 내	구분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	매우 잘함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능숙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관찰법
	잘함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대체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보통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라. 명상·토의단계 수업자 의도

학교현장에서는 융합교육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두 교과를 합하여 관련 된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도 도덕과와 국어과를 하나로 하여 인문고전을 지도하고자 한다. 6학년 국어과에서는 토의법을 지도하는 차시가 있다. 이를 ‘TMD방법’과 융합하여 지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도덕은 일주일에 한 시간인 시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토의·토론 법을 심층 있게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명상 단계도 접목시켜 적용함으로써 토의 토론을 준비하는 한 단계로써 명상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의 결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에게 인문고전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어려운 고전보다는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선호하는 어린이들에게 고전의 가치를 이야기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히 고전은 어려운 책이라고 멀리 하던 어린이들에게 고전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어린이들에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논문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을 배우다는 것은 철학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우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성장할수록 더욱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하면서 습득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철학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일찍 고전을 접했고, 그 고전을 어떻게 배워 가는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스로 철학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부터 도덕규범을 배울 수 있었다. 필사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심히 하는 배려의 덕목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며, 명상의 단계를 통해서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끝으로 토론의 단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예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다. 이렇듯 학습과정 자체에서부터 어린이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공부를 했으며 자연스럽게 도덕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 된 직후에 작성 된 사후 학습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3> 'TMD방법' 적용 사후 학습지

<p>◆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필사를 할 때 머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다. - 인문고전에서 한자를 필사하는 것이 힘들었다. - 필사를 하기 위해 평소 좋아하던 스마트 폰을 자제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
<p>◆ 새로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학>에서 부모님께 왜 효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다. - 필사하는 법과 명상하는 법, 토의·토론 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p>◆ 흥미롭거나 즐거웠던 과정은 어떤 단계였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 명상을 할 때 정말 몸이 편안해 짐을 느낄 수 있었다. - 친구들과 함께 필사를 할 때는 서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p>◆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이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는 <논어>와 <맹자>의외에 다른 인문고전도 읽고 싶다. - 꾸준히 해서 몇 년 뒤에는 더욱 다양한 생각을 하고 싶다.
<p>◆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나의 태도에 대해서 반성해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사를 할 때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친구에게 방해가 된 것 같다. - 바른 자세로 필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허리가 굽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본 연구를 어린이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 어린이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인문고전을 공부하며 다양한 도덕적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사, 명상, 토의·토론을 거치면서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TMD방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순차적인 인문고전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체적으로 어린이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수업이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희망 어린이 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어린이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이 지나치게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특히나 4명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인문고전에 흥미를 느끼고 희망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어린이들로 기본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우수하며 평소에도 독서를 즐겨하는 어린이이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글을 읽기조차 힘든 기초부진 어린이의 경우 인문고전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독서교육이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어린이들은 참고 인내하며 필사를 하는 것에 몸서리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를 계기로 더 많은 현장에서 인문고전과 어린이 철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한다면 개별적인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춰 지도할 수 있는 방법도 곧 연구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어린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의 사고체계가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인문고전을 접하고 이에 대해 토의·토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어린이라면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기대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내용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문고전을 원문으로 읽지 않고 번안된 책으로 제시를 하여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번안된

도서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실시되었다면 어떤 번안서적을 선정해야 하는지와 원문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인문고전을 읽고 어린이 철학에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초등도덕교육의 한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지만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연구자에게 제언한다면 이 연구를 통해 인문고전의 가치와 어린이 철학에의 접근 방법 그리고 'TMD방법'의 접근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도한다면 더욱 다양한 어린이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번안된 도서에 대한 소개와 각각의 도서에서 얻을 수 있는 철학적인 접근을 자세하게 연구한다면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운 분야이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에게 '철학함'을 가르치고 도덕교육의 한 가지 방법으로써 다른 어떤 방법보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저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국어·도덕·사회』,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미셸 루트번스타인, 박종성 옮김(2007), 『생각의 탄생』, 예코의 서재.
- 박찬영(2008), 『어린이 철학, 도덕교육에 대한 또 다른 목소리』, 한국학술정보(주) .
- 연준혁(2013), 『공부하는 인간』, 예담
- 이영돈(2006), 『마음』, ㈜위즈덤하우스.
- 이지성(2010), 『리딩으로 리드하라』, 문학동네.
- 장승희(2013), 『도덕교육, 그 성찰과 모색』, 양서원.
- 장현갑 외 역(2005), 존 카밧친(John Kabat-Zinn),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上·下)(*Full Catastrophe Living*), 학지사.
- 최효찬(2012), 『세계 명문가의 독서교육』, 바다출판사,

논문

- 김보정(2010), 「초등 도덕과 교육에서 덕교육적 요소의 분석과 적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금(2010), 「중등학교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용(2002),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연구』 제15집 2호, 초등도덕교육학회, pp.87-104.
- 배상식(2010), 「초등도덕교육에서 ‘철학교육’ 교육의 적용」, 『철학연구』 제113집, 대한철학회, pp.137~142.
- 송선아(2013), 「어린이 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년 교사발표자료집』,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교육연수원.
- 오창진(2008), 「립맨 어린이 철학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교육대학교 대

학원 석사논문.

- 이유태(2003), 「어린이와 함께 철학하기 :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과 원칙에 대하여」, 『철학연구』 제86집, 대한철학회, pp.253-278.
- 이황직(2011),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 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제26호, pp.517-548.
- 임윤정(2007),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과 방법론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44호, 한국동서철학회.
- 장승희(2014), 「명상의 도덕교육적 효과」, 『도덕교육의 본령과 활성화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4년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pp.343-384.
- 전성희(2009), 「어린이 철학교육에 기초한 초등도덕과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모(2007), 「교양교육과 고전 읽기」, 『독어교육』 제39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pp.329-350.
- 정인선(2010), 「초등교육과 어린이 철학교육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좌경옥(1995), 「철학교육의 도덕교육적 효과 : IAP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덕교육연구』 제7집, 한국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회.
- 황경식(1988),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 어린이를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1988 봄(통권 제1호), 철학과현실사.

기타자료

- <http://yosm.asunaro.or.kr> :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특집기사-‘넘사벽’인 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 2014.06.28, 창간호(검색일: 2014.06.30).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28097>, 『매일경제신문』, 「국제학업성취도, 한국 15세 수학실력 OECD 1위, 흥미·자신감은 최하위권」, 2013.12.04(검색일: 2014.06.30).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3740>, 『이투데이』,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필사자에 감사패 전달... “필사는 열독 중의 열독”」 2014.04.01.(검색일: 2014.04.2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728>, 『뉴스천지』
2010.11.02, 「삼성가 여자들의 자기 계발법」 <사람을 읽는 이부진의 독서
법>(검색일: 2014.07.05.)

A B S T R A C T *

The Application of Liberal Arts Classic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Moon, You Hye

**Major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ang, Seung Hui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applying liberal arts classic to children's philosophy in elementary moral education. Nevertheless there are many viewpoints which is more competitive things, moral education or children's philosophy, in this study children's philosophy is one of moral education methods. And, many scholar raised a question constantly whether philosophy can be apply to children. the point of view is based on a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but this study premised that philosophy can be apply to children enough.

In children's philosophy, IAPC program was widely accepted. This study made an introduction IAPC program as one of the children's philosophy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4.

method. Here-by this study gained a foothold in applying liberal arts classic to children's philosophy education.

Liberal Arts Classic is valuable material that can make children to consider the matter from different standpoints. But it is difficulty to understand its sentences to children. To solve the problem, this study apply 'TMD method'. 'TMD method' means transcription, meditation, discussion.

'Transcription' is copy out the text and it plays role to make understanding liberal arts classic and remembering accurately. Next, 'Meditation' is stage to remind liberal arts classic's contents and appreciate the meaning. Last, 'Discussion' is stage to talk opinion with their friends and to extend their thought.

Elementary school can apply 'TMD method' to moral education. This study implemented qualitative research of 4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e students are responding very positively on this research and they said that they can think deeper than usual. As this study suggested the plans of class applying 'TMD method', it laid a good foundation for vitalization of moral education by applying liberal arts classic.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at is the range of studying narrowness and is not applying diverse liberal arts classic. However, it is looked for complement through a follow-up study.

주요어 : Children's philosophy, Liberal arts classic, 'TMD method', Transcription, Meditation, Discussion.